

남원시, '한여름 밤의 소리여행'

내달 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사랑의 광장서 남원시립국악단·신관사도 부임행차·창극 춘향만리 등

남원시의 여름 상설공연인 '한여름 밤의 소리여행'이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2018 한여름 밤의 소리여행은 지난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사랑의 광장에서 남원시립국악단, 신관사도 부임행차, 남원시립농악단, 창극 춘향만리 등 검증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에서는 오는 8월 7일 퓨전국악극악기요를 주제로 실내악 뗏목으로 사는 세상, 해금협주곡 '가면무도회, 모듬복합주곡 'Ta' 등 다양한 연주곡과 관소리 흥부가를 재해석한 '박재령', 어부들의 모습을 그린 '남도뱃노래', 팔도의 민요를 한 곡에 담은 '민요메들리' 등 현대적인 국악악기 관객들을 맞는다.

또한 8월 15일에는 전통 민속악 공연으로 태평성대, 한량무, 교방살풀이, 입춤 소고 등 유아하고 화려한 무용과 함께 가야금병창, 민요, 입체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남원시립국악단의 이난초 예술총감독과 임현민 수석 명창이 펼치는 입체창 아사십봉막은 이몸통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월매의 언어유희로 관객들에게 해학과 풍자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소리꾼 박남이 늙은 기생 청향의 이야기를 듣고 춘향가를 완성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브랜드 창극 춘향만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남원시립국악단은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기간 동안 더 많

은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특별공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립국악단은 지난 2013년부터 한옥 지원활동 야간상설공연에 선정되어 창극을 선보이고 있으며 관객 종합 만족도 94.4점 추천의향 98.3%를 받으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 오는 9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춘향테마파크 관아(동헌)에서 펼친다.

이 밖에도 2018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에서는 31일과 8월 10일 변화도의 남원부임행차를 해학적으로 각색하고 관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퓨전공연물 '신관사도 부임행차'와 통기타와 함께 하는 추억여행, 락 페스티벌, 남원시립농악단의 풍물연희, 국악뮤지컬 남원의 사랑가 등 풍성한 공연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1986년 남원시립국악단의 여름 상설공연에서 시작된 '한여름 밤의 소리여행'은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남원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장했으며, 매주 토요일 공연은 춘향테마파크 내 관아(동헌)에서 진행되는 남원창극 '춘향만리' (유료)로 대체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 여름 상설공연인 '한여름 밤의 소리여행'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부안 메리엘 스틱, 광란의 북소리 난타전 최우수상 수상

"이번 계기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난타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펼쳐진 2018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광란의 북소리 난타전 경연대회에서 사)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소속 난타동호회 메리엘 스틱(단장 조민재)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7일 오후로 5회째로 전북도와 남원시가 후원하고 남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최해 2018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광란의 북소리 난타전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 대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내에서 활동하는 최상위 그룹의 10팀 난타 동호 회원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이 대회는 도내 동호회 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도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신명난 놀이가 펼쳐졌으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마련되어 관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 메리엘 스틱 동호회는 각 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업을 통

해 우수한 멤버들을 선별해 지난 2017년 초 창단해 그동안 부안군 마실 축제 및 벚꽃축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펼쳐진 2018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광란의 북소리 난타전 경연대회에서 사)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소속 난타동호회 메리엘 스틱(단장 조민재)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 고창수박축제, 부안읍 각종 요양원, 양로원 등에서 자선공연을 펼치는 등 부안의 대표적인 대표적 난타동호회로 알려져 있다.

채민재 단장은 "이번 결과는 그동안 회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온 결과"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더 부안을 대표하는 난타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동화 같은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내달 11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일환

가족오페라 '마술피리'가 8월 11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마술피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을 얻는 주인공 타미노와 파미나의 이야기다. 환상적이고 동화 같은 줄거리 속에서도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진지함과 철학적 교훈을 포함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원작 오페라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단순화시켜 관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밤의 여왕 아리아 등 주요 아리아와 하이라이트 부분을 발췌하여 우리말 대사와 함께 70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구성했다.

반원 형태, 흰색의 거대한 슬라이딩 무대와 특수효과를 사용하여 판타지적인 배경적 효과를 표현하고 객석 이벤트와 액팅(acting)을 통해 관객과 상호 소통하고 교감하는데 주안점을 둔 공연이기도 하다.

예술감독은 최상무 (재)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본부장, 연출은 독일 출신의 헨드릭 뮐러(Hendrik Muller)가 맡았다. 밤의 여왕 역은 정승연, 타미노 역은 김동년, 파미나 역은 이은정씨가 맡는다.

공연 관계자는 "마술피리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 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풍부한 아리아 선율과 한국어 대사, 민요풍의 가곡 등 다채로운 음악적 구성을 갖춰 가족오페라로서는 최적이다"며 많은 이들의 관람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들도 흥미 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요소를 더하고 주인공이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도 담았다"며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람료는 2층 5,000원 3층 3,000원(장애인·국가유공자 50% 할인)이다. 이달 30일부터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더위 시원하게 날릴 '톡 쏘는' 전시 열린다

완주군 술테마박물관 오늘부터 '맥주와 함께 뷰티풀 썸머타임' 기획전

한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톡 쏘는 전시가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열린다.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31일부터 '맥주와 함께 뷰티풀 썸머타임' 기획전을 연다.

맥주는 맥아와 홉, 물이 빛은 순수한 발효음료로, 홉 특유의 쌉싸래한 청량감과 시원한 목 넘김이 감증을 달래줘 여름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술이다.

또 SNS에 유행처럼 퍼진 훈맥(훈자 즐기는 맥주), 편맥(편의점 맥주) 열풍까지 더해져 여름철 맥주판매량은 주류회사의 한 해 실적과 직결될 정도이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시장을 양분한 조선맥주와 동양맥주를 중심으

로, 우리나라에 맥주가 첫 선을 보인 1870년대부터 현재 우리지역 특유의 맥주문화 '가 맥'까지 두루 담는다.

특히 6.25전쟁을 딛고 회사를 재건하려는 '東洋麥酒 從業員에게 告誡(1953)' 광고, 공보처에서 촬영한 '조선맥주(주) 크라운맥주제조 공장(1957)' 사진, 역삼각형 OB맥주 라벨 탄생을 담은 '도안노트(1960년대)' 등 전시물들은 곧 우리나라 맥주역사 자체라고 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김재열 관장체육과장은 "하루의 끝자락에 마시는 차가운 맥주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곤 한다"며 "이번 맥주전시회를 즐기며 폭염을 날리는 시원한 여름을 맞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